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75호 (2013-05) 발행일 : 2013. 02. 0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부모이혼이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이혼이 아동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모갈등이 있었을 경우 부모 이혼의 효과가 달라질 것인가에 관한 학문적 논쟁이 있음. 이는 국가 인력정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함

연구결과, 1)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부모이혼을 경험하고 있고,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며, 3) 부모 이혼은 학업성취도 및 사회심리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 갈등관계가 있었을 때 부모이혼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작다는 발견을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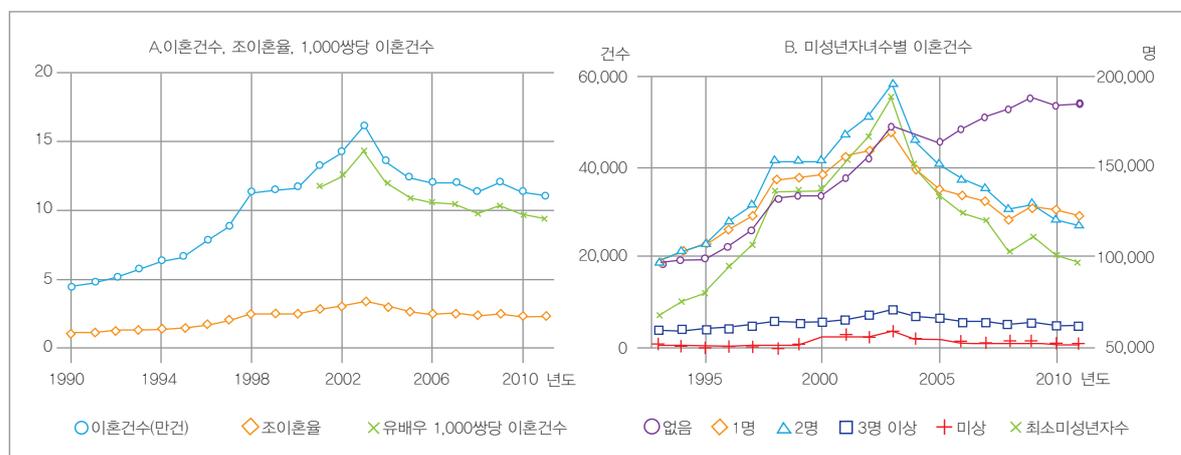
김현식 부연구위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0년 이후 증가를 보이던 이혼은 2003년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하고 있음 ([그림 1] A 참조)

○ 총이혼건수는 1990년 45,694건에서 2003년 166,617건으로 상승하였으나 2011년 114,284건으로 감소.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1에서 3.4로 증가 후 2.3으로 하락

[그림 1] 이혼관련 기초통계



자료: 통계청 홈 페이지(kosis.kr) 및 「2011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2012).

○이러한 통계는 이혼의 위험이 있는 사람, 즉 혼인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통계의 분모가 되어야 한다는 “율(rate)”의 개념에 합치하지 않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2004년 통계작성부터 유배우이혼율 개념을 도입하여 유배우자들의 이혼율을 추정한 후 혼인 1,000쌍 당 이혼건수를 계산하고 있음. 이를 살펴보면 2001년 11.8쌍이었던 것이 2003년 14.4쌍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11년 9.4쌍으로 줄었음

■ [그림 1]의 패널 B는 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를 보여주고 있음

○이 그림 또한 2003년까지 이혼건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녀가 없는 이혼건수는 2003년 이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1) 젊은 층, 즉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서 이혼이 증가하였을 가능성과 2) 자녀가 다 자라서 미성년자가 아닌 노년층의 이혼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이 그림에서는 부모이혼을 겪는 최소미성년자수를 계산하여 오른쪽 y-축에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 수치는 “없음”과 “미상”의 경우 0의 값으로, “3명 이상”의 경우 3의 값으로, 나머지는 자녀수로 가중하여 합을 구한 것으로 한 해에 부모이혼을 겪은 미성년자수의 최소값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를 보면 1993년에 66,374명이었던 것이 2003년 188,57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95,586명으로 감소하였음

○이렇게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인적자원의 향상 뿐 아니라 공정한 기회의 배분 및 행복한 사회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임

■ 이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혼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고 하였음

○한국의 몇몇 연구들은 이혼자들이 기혼자들에 비해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으며 아침식사와 규칙적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빈도가 적고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만족감이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sup>1)</sup>

○이혼은 그 결정을 하는 당사자들인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임

-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이혼을 겪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고등학교 중퇴의 확률이 높고 학업 성적도 낮으며 사회심리적 수준도 낮아 사회적 관계에 취약하다는 발견을 보고함.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줄지 않음

-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연구에 관한 한국의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음. 특히 한국에서의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아동만을 선정한 후 몇몇 변수에 따른 차별적 성장을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혼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함<sup>2)</sup>

○부모이혼의 부정적 영향이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라거나 통계적 오류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론적인 측면에서 1) 이혼을 고려할 때 자녀성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점과 2) 비록 이혼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탄력적(resilient) 성장으로 인해 극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1)이윤석(2012).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35(2), pp.103-131.

2)이훈구(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pp.47-53.

- 경험적 측면에서 1) 다양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면 이혼의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통계적 유의미도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발견이 있으며, 2)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면 이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음<sup>3)</sup>

■ 부모이혼이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의식의 하나는 이혼이 발생하기 이전에 심각한 부부간 갈등이 있었는가에 따라 부모이혼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임

○이혼 전 부부가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고 자녀들이 이러한 갈등을 빈번히 목격한다면 이혼의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있음. 예를 들어 갈등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갈등적 혼인 관계에 놓여 있다 이혼한 가정 자녀들에 비해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발견이 있음<sup>4)</sup>

○이러한 가설에 근거한다면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갈등관계를 겪지 않다 이혼을 경험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비해 이혼의 부정적 효과를 덜 겪을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함

○부모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봄

○부모이혼이 학업성적과 사회심리적 문제행위의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 다양한 혼동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이혼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며 일반회귀모형결과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을 수용하여 반사실적 인과모형(counterfactual causal model)으로 널리 알려진 매칭모형 중 통계프로그램 R에 기반한 GenMatch모형을 활용<sup>5)</sup>

- 여러 매칭방법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만 강력한 해석을 제공하는 1:1 매칭방법을 사용할 것임. 매칭 방법으로 얻은 계수는 통상 이혼자녀중심평균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라고 불리는 것으로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학업점수와 그 아동이 만약 부모이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학업점수의 차”라고 해석함

○부모이혼의 부정적 효과가 이혼을 겪기 전 부모 간 갈등관계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봄

## 2. 자료 및 측정

■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2008년 중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추적조사한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 초등학교4학년 패널을 분석함

○2004년을 기본년도(T1)로 설정하고 2008년을 추적년도(T2)로 설정한 후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한 부모이혼의 효과를 추정하는 사전후연구설계(pre-post test study design)를 사용

3) 미국의 사례로 Aughinbaugh, A., Pierret, C. R., Rothstein, D. S. (2005).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transitions on youth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Children of the NLSY79. *Demography*, 42, pp. 447-468.을 참조하고 한국의 사례로는 염유식·이지혜(2010). A panel data analysis of divorce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s among Korean adolescents: quite opposite results from OLS regression, 제4회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참조.

4) Amato, P. R., Loomis, L. S., Booth, A. (1995). Parental divorce, marital conflict, and offspring well-being during early adulthood. *Social Forces*, 73, pp. 895-915.

5) 반사실적 인과분석에 관해서는 Morgan, S. L., Winship, C. (2007).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 변수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음

○ 부모이혼 변수는 2008년 학생에 대한 질문지에서 부모님이 별거했는지와 이혼했는지의 여부와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학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함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학생을 부모이혼을 겪은 학생으로 조작화하였으며 아무런 사건을 겪지 않은 학생을 부모이혼을 겪지 않은 학생으로 처리함.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부모의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함
- 많은 경우 별거는 이혼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별거를 이혼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경향임. 더군다나 부모이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게 되면 부모이혼을 겪은 자녀수가 너무 적어져 추정치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한국청소년패널에서 부모설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혼에 대한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가족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이혼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설문을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부모의 고용관련 문제나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해 떨어져 사는 부모를 이혼부모로 정의하게 됨

○ 결과변수(outcome variable)는 국어성적, 수학성적, 외향적 문제행위 빈도와 내향적 문제행위 빈도로 구분하였음

-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은 T1시기와 T2시기에 모두 측정되었으며 학생에게 “지난학기 반성적”을 묻는 질문을 활용함. 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1. 매우 못하는 수준, 2. 못하는 수준, 3. 중간, 4. 잘하는 수준, 5. 매우 잘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0부터 4점까지로 재점수화한 후 연속변수로 취급하였음
- 학업성취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보고하는 점수로 측정하였음. 학업성취도를 학생의 평가로 측정한 것은 학생에 따라 과대보고나 과소보고를 하는 성향문제로 인해 측정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T1시기 보고를 혼동변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외향적 문제행위 빈도는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와 유사한 6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하여 측정<sup>6)</sup> 각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0~4점의 점수로 바꾼 후 더함. 내향적 문제행위 빈도는 내향적 문제행위에 관한 6개의 질문을 활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하였음<sup>7)</sup>

○ 부부갈등변수는 T1시기에 측정하였으며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는 질문을 활용하였음

- 각 질문에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는 선택지가 있었으며 두 질문에서 어느 한 경우라도 3점 이상에 응답한 학생은 부모 간 갈등을 겪었던 자녀로 처리하였음

6) 다른 다섯 개의 질문은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임

7) 설문문항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임

○ 이에 더하여 학생의 성별, 학생의 건강상태,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자가와 전세를 구분하는 주거형태, 로그를 취한 가구소득 및 거주지의 도농구분을 혼동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이들 변수는 모두 T1 설문으로부터 취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변수에서라도 결측치가 관측되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완전사례법(complete data approach)을 활용하였음. 원사례 2,844명 중 2,185명이 분석에 포함됨

### 3. 기초통계 분석

- <표 1>은 부모이혼상태별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선별적 결과)

변수 <sup>1)</sup>	변수값	전체 (N=2,185)		부모결혼 (N=2,109)		부모이혼 (N=76)	
		M/F <sup>2)</sup>	변수값	M/F <sup>2)</sup>	변수값	M/F <sup>2)</sup>	V/P <sup>3)</sup>
부모이혼	부모결혼	2,109	96.5	2,109	100.0	0	0.0
	부모이혼	76	3.5	0	0.0	76	100.0
부모갈등	갈등없음	1,620	74.1	1,575	74.7	45	59.2
	갈등경음	565	25.9	534	25.3	31	40.8
국어성적(T1)		2.5	0.6	2.5	0.6	2.4	0.6
국어성적(T2)		2.4	0.7	2.4	0.7	2.1	0.8
수학성적(T1)		2.6	1.0	2.6	1.0	2.5	1.1
수학성적(T2)		2.0	1.3	2.0	1.3	1.5	1.4
외향적 문제행위(T1)		8.0	20.1	8.0	19.8	8.9	26.9
외향적 문제행위(T2)		9.4	20.9	9.4	20.8	11.1	20.2
내향적 문제행위(T1)		6.6	23.9	6.5	23.8	7.5	26.8
내향적 문제행위(T2)		7.8	24.6	7.7	24.5	10.5	20.7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미만	148	6.8	140	6.6	8	10.5
	고졸	1,365	62.5	1,309	62.1	56	73.7
	대학 이상	672	30.8	660	31.3	12	15.8
주거형태	자가	1,397	63.9	1,367	64.8	30	39.5
	전세	607	27.8	576	27.3	31	40.8
	기타	181	8.3	166	7.9	15	19.7
로그 가구소득		5.6	0.3	5.6	0.3	5.4	0.6

주: 1) T1은 2004년 조사를, T2는 2008년 조사를 의미함. 2)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빈도수를 의미함. 3) 연속변수의 경우 분산을, 범주형 변수의 경우 백분율을 의미함. 선별적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완전한 표는 저자에게 요청바람.

- 분석에 포함된 2,185명의 학생 중 부모이혼을 경험한 학생은 약 3.5%인 76명임
- 부모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중 25.3%만이 부모갈등을 겪었으나 부모이혼을 경험한 학생 중 40.8%가 부모갈등을 보고함. 하지만 부모이혼을 경험한 학생 중 과반수가 부모갈등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 이혼을 하는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는 갈등관계를 숨길 가능성, 2) 모든 이혼쌍이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 그리고 3) 부모갈등변수가 이혼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측정되어서 부모갈등이 측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을 보면 T1시기에는 매우 적은 차이를 보이지만 T2시기가 되면 부모이혼을 경험한 학생의 성적이 눈에 띄게 낮아짐. 각 시기별로 두집단 t-검증을 하면 T1시기의 차이는 .05  $\alpha$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2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부모이혼의 효과가 순전히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의해 설명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임. 만약 부모이혼이 선택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T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임
- 외향적 및 내향적 문제행위 빈도를 보면 T1에서 부모이혼을 경험할 학생의 문제행위 빈도가 약간 더 많이 나타나지만 T2 시기에 그 격차가 더 벌어짐. 두집단 t-검증결과, T1시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2시기의 차이는 유의미함
- T1시기에 측정된 어머니 교육수준과 주거형태, 그리고 로그 가구소득변수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 속한 학생의 부모이혼 경험이 높을 것이라는 통설을 지지함
  - 예를 들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들여다보면 부모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6.6%만이 고졸 미만이었으나 부모이혼을 경험할 학생에서 10.5%가 고졸 미만이었음. 이러한 차이는 대학 이상에서 31.3%와 15.8%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4. 부모이혼 예측

- <표 2>는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이혼을 예측하는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임

<표 2> 부모이혼 예측 로짓모형(선별적 결과)

변수	변수값	계수	추정오차	승산비(odds ratio)
부모갈등	갈등 겪음	0.628*	0.254	1.875
국어성적(T1)		-0.083	0.167	0.921
수학성적(T1)		0.106	0.131	1.112
외향적 문제행위(T1)		0.024	0.028	1.024
내향적 문제행위(T1)		0.013	0.026	1.013
성별	여자	0.220	0.254	1.246
어머니 교육	고졸	-0.276	0.478	0.759
	대졸 이상	-1.202*	0.591	0.301
주거형태	전세	0.857**	0.267	2.357
	기타	1.294***	0.348	3.648
로그 가구소득		-0.288 †	0.167	0.750
거주지역	농촌	-0.068	0.353	0.934

주: P-value: †(0.1, \*(0.05, \*\*(0.01, \*\*\*)(0.001. 선별적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완전한 표는 저자에게 요청바람

- <표 2>를 보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가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나 사회심리적 발달 혹은 성(性), 건강상태와 같은 학생의 특성은 부모이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교육, 주거형태와 가구소득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이혼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예를 들어, 대졸 이상의 어머니를 둔 학생의 부모이혼 odds는 고졸 미만의 학생에 비해 0.301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의 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교육의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표 2>에서 어머니 교육효과의 계수는 주거형태와 가구소득 같은 변수를 통제한 이후의 어머니 교육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머니 교육수준과 관련 있는 다른 혼동변수들, 예를 들어 할머니·할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것이 아님. 따라서 통상의 연관도(association)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표 2>에서 주거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에 비해 주거형태는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5. 부모이혼효과 모형분석

■ 부모이혼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 3>에서 평균효과, 즉 부모이혼효과를 살펴보면,

○ 모든 발달영역에서 부모이혼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하거나 매칭모형을 사용하거나 그 결과에 차이가 없음

<표 3> 부모이혼효과 추정결과

결과변수	일반회귀모형				변수값			
	평균효과		상호작용효과		평균효과		상호작용효과	
	계수	추정오차	계수	추정오차	계수	추정오차	계수	추정오차
국어성적(T2)	-0.282**	(0.092)	0.404*	(0.187)	-0.276 †	(0.141)	0.546	N.A.
수학성적(T2)	-0.443***	(0.121)	0.006	(0.247)	-0.500**	(0.183)	0.755	N.A.
외향적 문제행위(T2)	1.587**	(0.524)	1.822	(1.064)	2.605**	(0.796)	3.130	N.A.
내향적 문제행위(T2)	2.547***	(0.558)	1.217	(1.134)	3.342***	(0.678)	2.692	N.A.

주: P-value: † (0.1, \* (0.05, \*\* (0.01, \*\*\* (0.001. 일반회귀모형에서 다른 변수의 계수는 저자에게 요청바람

○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매칭모형을 통해 나온 계수가 더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회귀모형에서 관측이 많은 사례로 외삽하는(extrapolation)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일반회귀모형에서 부모이혼의 효과는 국어성적을 0.282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칭모형의 결과는 “만약 부모이혼을 경험했던 학생이 부모이혼이 없었더라면 국어성적이 0.276점 올랐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함

- 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바, <표 1>에서 제시한 분산을 활용하여 표준정규분포로 변환시킨 후 학생 사이에서 순위의 변동을 표시할 수 있음. 국어성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매칭모형에서 계수가 -0.276으로 나왔으며 <표 1>로부터 표준편차가 약 0.819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부모이혼 효과는 약 0.337 표준편차를 변화시키는 것임. 이는 100명 중 50위에 있던 학생이 부모이혼을 경험했다면 국어성적이 63위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함<sup>8)</sup>

-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면 수학성적과 외향적 및 내향적 문제행위에서 순서대로 0.443, 0.570, 그리고 0.674 표준편차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50위에 있던 학생을 67, 72, 그리고 75위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함. 부모이혼은 하나의 사건으로 자녀의 모든 발달영역에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것임

■ 상호작용효과는 T1에서 부모갈등의 존재 여부에 따른 상이한 부모이혼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8) 같은 값의 표준편차라도 중간값에서 멀어질수록 순위를 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이를 보면 일반회귀모형에서 국어성적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모갈등이 존재했을 때 떨어지는 성적의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즉 부모갈등이 없었을 때에 비해 부모갈등이 있었을 경우 국어 성적이 0.404점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부모갈등이 크면 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것이 자녀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지지함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반대로 갈등이 크지 않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쪽의 영향이 더 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함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1)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미성년자들이 부모이혼에 노출되어 있고,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혼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3) 부모이혼은 자녀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 갈등관계가 있었을 때 부모이혼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모이혼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는 것을 발견함
- 이러한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이혼시기에 경험한 학업성취도 하락과 사회심리적 문제행위의 증가는 여태 해가 지난 후에도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이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송부하게 하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학교 교사로부터의 따뜻한 관심과 같은 주위사람들의 보살핌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학교나 이웃에 기반한 돌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이혼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이혼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음.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물질적 · 정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부모이혼을 경험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간 갈등관계의 정도에 따라 이혼숙려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간 갈등이 크면 이혼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이혼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함

집필자 | 김현식(인구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문의 | 02-380-8390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